

이달 한약재 250종 전면 검사 시행

유효 독성성분 확인기초로 품질표준 마련 계획

최근 발암물질이 들어 있는 일부 한약재에 대한 전면 사용금지 조치가 내려진 가운데 이달부터 한약재 250종에 대해 전면적인 검사가 시행된다.

식약청은 올해 업무계획에서 전국 한의원, 약국, 제조업소 등을 대상으로 한약재 규격품 및 한약제제를 수거해 검사에 들어간다고 지난 달 31일 밝혔다.

이번 식약청의 검사 대상 한약재는 총 250종으로, 지난 2003년 176건, 2004년 47건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다.

식약청은 수거검사 대상 확대를 포함한 한약재 관리

종합 대책안을 마련하고 이달부터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불량한 약재를 공급하다 재차 적발되는 제조업소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하는 등 제조·품질 관리를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아울러 '한약 규격화사업'을 통해 유효·독성 성분 확인을 기초로 품질표준을 마련하고 관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 "한약재 위해 관리 사업"을 통해 중금속·잔류농약 등 유해물질에 대한 모니터링과 위해성 평가를 바탕으로

로 안전기준 설정관리도 추진한다. 이밖에도 한약재의 유통기한, 품질표시, 생산·제조·유통과정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한약재 표시, 품질 등급화 사업"도 계획 중에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올해 초 업무계획에 포함됐던 내용으로, 최근 한약재 판매금지 조치와는 상관없다"면서도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식약청은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한약재 규격화 등에 관리업무를 이관 받은 바 있다.

농촌진흥청 성낙술 박사

한국약용작물학회 제6대 회장에



2005년 한국약용작물학회 정기총회 및 춘계학술발표회에서 농촌진흥청 작물과학원 성낙술 박사(인삼약초과장)가 제6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성낙술 박사는 '82년도 농촌진흥청에 첫 발을 들여 놓은 이후 특용작물 및 약용작물 연구에만 전념해 왔으며 현재 인삼약초과장으로 재직 중인 가운데 인삼연구기능 및 조직 확대 개편작업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성낙술 신임회장은 현재 세계 약용항신료작물 위원회(ICMAP) 한국대표, 국제 약용식물 조화 포럼(FHH) GAP분과위 한국대표, 농촌진흥청 바이오그린 21사업 친환경농업소재연구단 단장과 경원대학교, 경희대학교 한의학과 겸임 및 객원교수로 활동하는 등 국내외적으로 약초산업 발전에 기여해 오고 있다.

지황, 백출 등 총 2,150t 수입결정

kg당 20원 농가보호기금으로 적립

2005년도 하반기 수급용 한약재 킬로그램이 결정됐다.

한약재수급조절위원회는 지난 6월9일 열린 제57차 회의에서 독활(30톤), 두충(50톤), 백문동(70톤), 백지(50톤), 백출(500톤), 오미자(150톤), 작약(200톤), 천마(20톤), 황금(80톤), 지황(1,000톤) 등 총 2,150톤 분량이다.

이번에 결정된 킬로그램에 대한 추천은 올 연말까지 통관은 내년 1월31일 까지다. 또한 이들 킬로그램에 대해서는 kg당 20원이 생산농가 보호기금으로 적립된다.

한편, 남북교류협력증진차원에서 제기된 북한산한약재 반입승인 요청에 대해서

는 이날 회의에서 결정된 킬로그램 범위내에서 백출 300톤, 오미자 20톤, 지황 300톤, 작약 50톤(총670톤)에 한해 허용기로 하고 그만큼은 수입결정분에서 제외기로 했다. 이에 앞서 한국생약협회는 북한산한약재 반입승인 건과 관련 국내생산농가 보호차원에서 반입불가 원칙을 건의한 바 있다. 북한산 한약재는 중국산 등 타 수입산과 달리 무관세로 들여온다는 이점 때문에 북한산 진위여부에 대한 철저한 관리 필요성도 지적됐다.

또 한약재수급조절품목의 단계적 축소방침에 따라 오는 2006년부터 백지, 백출, 독활, 두충 등 4개 품목이 수급조절품목에서 제외될 전망이며, 관련규정 개정고시 전까지는 수급량을 정해 운영기로 했다.

고시형 건강기능식품 5개 품목 추가

녹차추출물, 홍국, 대두단백제품 등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민들이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종류를 넓히고 건강기능식품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건강기능식품의 기준및규격"을 개정하여 녹차추출물제품, 대두단백 함유제품, 식물스테롤함유제품, 프락토올리고당함유제품, 홍국제품 등 5개 품목을 고시형 건강기능식품에 추가한다고 2005년 5월 26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되는 품목들은 식약청의 주도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산업계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안전성, 기능성, 기준·규격에 대하여 검토하고 고시화한 건강기능식품이며, 녹차추출물제품의 기능성은 "항산화 작용"으로, 대두단백 함유제품, 식물스테롤함유제품, 홍국제품의 기능성은 "높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의 개선에 도움"으로, 프락토올리고당함

유 제품의 기능성은 "장내 비피더스균의 증식 및 장내 유해균의 성장억제에 도움, 배변활동을 원활히 하는 데 도움, 칼슘흡수에 도움"으로 인정하였다.

식약청은 이번에 5개 품목이 추가됨으로써 건강기능식품이 다양화되어 소비자는 자신에게 필요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고, 건강기능식품 산업계, 특히 영세 제조업자는 연구 개발에 대한 별도의 투자 없이 새로운 소재의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수 있게 됨으로써 생산의욕이 증대되고 새로운 시장이 창출되어 전체적으로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약발전포럼' 발족

오는 7월6일, 발대식 및 포럼 개최

국내 한의약발전의 근간인 국산한약재 경쟁력 확보 나아가서는 제고 방안 모색 차원에서 관련단체 및 관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한약발전포럼(가칭)(이하 한약포럼)이 발족된다.

포럼 발족은 국산한약재 경쟁력 확보와 국내 한약산업의 발전을 위한 한약정책 개발과 한약재의 생산·유통·소비단계의 합리적인 기준설정과 정착 및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한약포럼은 오는 7월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발대식을 갖고, "우리한약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다. 이날 포럼에서는 신광호 외치학

회장과 박준수 마산대학교수가 "외국의 사례 및 우리의 대안"과 "국산한약재 경쟁력 확보방안"을 내용으로 각각 주제 발표할 예정이다.

한약포럼의 활동영역 및 사업내용은 △한약재의 생산, 제조, 유통에 대한 구체적인 현실적인 방법(기준) 연구, △한약재의 관능적인 품질기준(일반적인 기준) 연구, △한약재의 정상가가 이하의 유통행위 근절방안에 대한 연구, △법률적, 현실적으로 단일품목이나 사실은 약효성, 기원, 학명, 산지, 생산방법 등이 전혀 다른 한약재 중 기준품 선택 방안 연구, △상품 한약재 품질기준 연구 등이다.

한약재 청목향 등 6월부터 사용금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발암 추정물질인 아리스토크산(Aristolochic acid)을 함유한 한약재 '청목향 및 마두령'과 그 한약제제에 대해 6월부터 출하와 사용을 중지할 계획이라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청목향과 마두령은 한약(생약)규격집에서 삭제하고 안전성과 유효성 문제성분으로 추가 지정하여 허가를 제한할 예정이다.

또 식약청은 한약재와 그 한약제제 공급자인 제조업소, 수입자, 도매상 등은 6월 1일부터 제조·

수입·출하를 전면 중지하고 현재 시중에 유통중인 제품을 오는 7월 31일까지 수거·폐기해야 한다.

취급자인 한의사, 약사, 한약사, 한약업사 등은 6월 1일부터 처방 등 사용을 중지하고 제품수거와 반품에 적극 협조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청목향은 장염, 변비 등에 사용되는 한약재로 사용량이 미미하고 한약제제로는 허가된 바 없으며, 마두령은 기침·천식 등에 사용되는 한약재로 일부 생산되고 있다.

보은군 약초단지 30ha 조성

충북 보은군은 2007년까지 30ha규모의 약초생산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군은 최근 웰빙바람을 타고 한약재와 차 원료로 수요가 급증하는 삼백초와 어성초 재배기반을 구축키로 하고 올해 군비 9천만원으로 희망농가에 씨앗 값을 지원할 계획이다. 0.1ha(300평) 이상 재배농가에 지원되는 씨앗 값은 연리 2% 2년거치 5년 상환조건이다.